

보이지 않는 첫 마음

남 윤영

“엄마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큰 아이가 묻는 말에 나는 곧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교사의 일을 그만 두고 주부로 살아온 지 10년도 더 지났다. 옛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를 망설이는데, 문득 어떤 사건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가슴에 강직함과 열정을 가지고 중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했던,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

교사가 되던 첫 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담임을 맡았다. 처음으로 중학생이 되던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서 나는 마음을 먹었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의 분위기도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만들어주었다. 종종 교사들의 촌지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선배 교사들은 신규 교사들을 붙들고 깨끗하고 바르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동료 교사들은 어쩌다가 학부모님들에게 받은 상품권이나 선물을 두말할 것 없이 돌려주었다. 그 당시 나는 촌지 문제를 깨끗하고 강직한 교사의 유일한 척도로 여겼던 것 같다. 그래서 촌지 문제 하나 없이 지내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학금 관련 업무로 교장실에 가게 되었다. 휴일마다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던 축구회에서 장학금을 기부했고, 장학 관련 교사들의 협의 절차에 따라 장학생들이 결정되어서였다.

당시 장학계를 맡고 있던 나는 교장 선생님 앞에 결재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다. 교장 선생님은 다른 때와는 달리 결재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고 잠시 망설이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다.

“남 선생님, 장학금에 대해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결재 서류 위에다가 납부금 미납자 명단을 올려놓더니, 말을 계속했다.

“여기 이 아이들이 곧 졸업예정인데, 납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도 어렵지 않은 아이들인데,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납부금을 내지 않았어요. 이대로 졸업해버리면 학교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교장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앞에다 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남 선생님, 장학금을 선정된 학생이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그 금액으로 미납금을 메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학교를 위한 일입니다.”

그 순간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결재 서류를 들고 교장실을 나왔고, 교무실까지 가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다.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머리가 아프기까지 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장학금을 주지도 않고, 서류로만 장학금을 준 것처럼 꾸며 놓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빼돌린 장학금으로 미납금을 채워 넣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지시 사항을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빼돌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장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를까?’

아주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까지 했다.

‘촌지 문제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 아이가 생각났다. 장학금을 받기로 예정된 아이였다. 그 아이는 장학금 협의를 할 때도 거의 모든 교사들의 추천을 받았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였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그 아이는, 점심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급식 신청도 안 하고, 도시락도 못 싸오던 아이. 가끔 교사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그 아이에게 건네는 일도 있었고, 반 친구들이 점심을 나누어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 아이에게 가야할 장학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교무실로 들어간 나는 제일 먼저 장학금 관련 협의를 함께 했던 동료 교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과 관련된 교장 선생님의 계획을 과감히 드러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들끓듯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우리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장학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던 중 교장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찾는다고 했다. 왜 나를 찾는 걸까? 혹시 장학금과 관련해서 동료 교사들과 몰래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을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교장실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 안으로 들어가 기까지 마음이 어지러웠다.

교장실에서 본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 앞에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잠깐 생각하는 사이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남 선생님,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가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처럼 신규 교사로 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정직이 교육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된 첫 해에 그 처음의 마음을 잊고, 실수를 저지를 뻔했군요.”

교장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첫 마음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부패한 세상으로 진입하려던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첫 마음을 기어올라 찾아내어, 더러운 세계로 뻗치려 하던 자신의 마음을 돌리던 순간이었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어내려던 욕심에 선을 긋는 고귀한 순간이었다.

시작할 때의 마음이 순수하고 신선하더라도, 그 마음에 흠집이 생기면 모든 상황이 금세 변할 수 있는 있다는 걸 깨닫자, 나는 나 역시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함을 알았다. 교장 선생님이 부당한 지시사항을 내렸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부당함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게 창피해졌

던 것이다. 또 잠시나마 교장 선생님의 부당한 지시사항에 순순히 따를까, 하며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몹시 부끄러웠다. 촌지 문제만 아니면 관참을지도 모른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몹시도 창피하게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축구회에서 수여하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달해주었다. 여유 있고 인자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장학증서를 건네주던 교장 선생님의 얼굴 속에서 강직하고 깨끗한 교장 선생님의 첫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며칠 뒤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술이 적은 하얀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 한 분이 두 손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복도에 서 계셨다. 알고 보니 축구회 장학금을 받은 아이의 할머니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장학금을 다 주시고.....받은 장학금으로 우리 애 급식 신청해 주려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장학금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장학금을 담당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거듭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고 돌아서셨다. 콧콧하지 못한 허리로 복도를 느릿느릿 걸어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하여 분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교사생활을 하자고 다짐했었다.

그 뒤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교사도 아니지만, 내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그 이후로의 내 삶은 나의 첫 마음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였다. 신념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부당한 요구에 반대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를 두고 항상 선택을 요구받았다.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첫 마음을 살펴보면 다시 설 수 있었다.

“엄마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나는 큰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한 첫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였

다고. 그리고 그 마음은 교사가 아닌 지금도 유효하다고.